

크리에이티브

힉스필드, 1시간 AI 영화 제작 사례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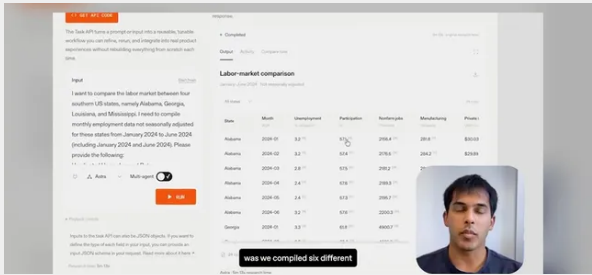
힉스필드가 장편 AI 영화 채널 엘 리브로 사그라도의 제작 순서를 단계별로 공개했어요. 한 편에 20일에서 한 달이 들고, 처음 나홀에서 닷새가 리서치와 인물 설계에 쓰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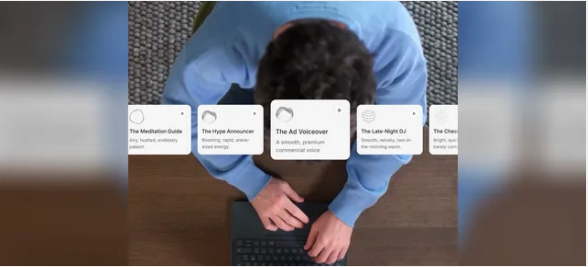
크리에이티브 · 힉스필드, 1시간 AI 영화 제작 사례 공개

한 사람이 1시간짜리 영화를 스무 날에 한 편씩 내놓고 있어요. 엘 리브로 사그라도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가보는 역사와 신화 이야기를 장편 AI 영화로 바꾸요. 힉스필드가 9월 22일 공개한 사례 연구는 그가 어떤 순서로 그 길이를 버터 내는지를 단계별로 적어 놔여요. 회사 측은 가보가 CPP 프로그램에 들어온 뒤 결과물의 질과 양이 모두 크게 늘었다고 밝혔어요. 메탈이 확인한 엘 리브로 사그라도 채널의 공개 지표는 구독자 28만9,000명, 공개 영상 55편, 누적 조회수 5,421만 회였어요. 채널이 열린 날은 2025년 4월 2일이예요. 사례 연구가 최고 성적으로 든 작품인 「라스 크로니카스 데 에녹」은 1시간 21초 길이에 조회수 615만 회였고, 목록에 오른 영상 대부분이 1시간 안팎에서 끊겨요. 1년 반 만에 쌓인 숫자예요.

시작은 장편이 아니었어요. 가보의 첫 실험은 틱톡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올린 짧은 영상이었어요. 이미지는 미드저니로, 움직임은 하일루로 만들었고 나중에 크레아 AI와 플렉스, 챗GPT를 차례로 붙여 봤어요. 프로젝트마다 풀어야 할 문제가 하나씩 새로 생겼어요. 정지 이미지를 움직이게 하는 일, 두 컷을 잇는 일, 같은 인물을 알아보게 유지하는 일, 그리고 이야기 하나를 끝까지 끌고 가는 일 순서였어요. 연기와 영화에 대한 관심이 그 실험들을 긴 서사 쪽으로 밀었고, 인터스텔라와 장고, 오디세이, 브레이킹 배드, 다크가 긴장과 인물, 여러 줄기를 잇는 방식의 본보기가 됐어요.



힘하고, 어려운 장면을 여러 판 돌려 다듬고, 본편을 시작하기 전에 모델 조합을 고르는 일이 가능해졌어요. 가보는 "힉스필드는 제 경력에서 전과 후를 갈랐어요. 제가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의 질과 수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구글, Gemini 3.8 TTS 모델 2종 출시
일정표는 단순해요. 1시간짜리 한 편에 20일에서 한 달이 들고, 그 가운데 처음 4~5일이 리서치와 대본, 구조, 인물 설계에 쓰여요. 순서도 고정돼 있어요. 제작 전에 여러 모델을 시험하고 고른 모델은 중간에 바꾸지 않아요. 챗GPT와 클로드, 직접 만든 에이전트는 프롬프트를 정리하고 다음에는 쓰고 이야기를 지어내는 데는 쓰지 않아요. 다음 컷을 만들기 전에 앞 클립의 마지막 프레임은 먼저 분석해요. 시각적 정체성은 장면을 본격적으로 생성하기 전인 초기 기획 단계에서 정해요.

가장 야심 찬 작업으로 꼽힌 「더 크로니클스 오브 이복」은 이복서를 둘러싼 신화에서 출발해요. 땅으로 내려오는 천사인 워처스, 거인의 등장, 그리고 그들의 첫 어머니 가운데 하나가 되는 아인미라 같은 인물이 그 세계에 들어 있어요. 원문을 그대로 옮기는 대신 새 갈등과 창작 인물, 동시에 굴러가는 다섯 줄기를 엮은 각색이에요. 이 규모에서는 주요 인물이 어디에 도착해야 하는지를 먼저 정하고 거기까지 가는 여정을 거꾸로 짜요. 그러면 전체 방향을 잃지 않으면서도 제작 도중에 새 아이디어를 넣을 자리가 생겨요.

작업은 대본이 완성되기 전에 인물에서 시작해요. 얼굴

과 화질, 프레임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통제력이 올라갔어요. 최근작과 진행 중인 작업은 Cinema Studio 4.0에서 돌아가요.

프롬프트에도 순서가 있어요. 주된 동작과 극적 의도를 맨 앞에 두고 카메라 위치, 렌즈, 움직임, 조명, 피사계 심도, 색, 환경이 뒤따라요. 구도도 같은 방식으로 다뤄요. 3분할과 겹겹의 깊이, 중심을 비켜 둔 프레임링, 옆얼굴이나 뒷모습으로 보여 주는 인물이 쓰여요. 화면 한가운데에 대칭으로 놓여 흔한 AI 결과물처럼 읽히는 자리에서 영화의 시각 언어 쪽으로 이미지를 밀어내는 장치예요. 색은 60-30-10 규칙으로 나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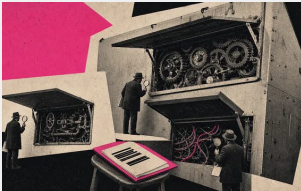
기술적으로 잘 만든 인물도 생기가 없을 수 있어요. 1시간 내내 관객은 인물이 생각하고 듣고 주변에 반응한다고 믿어야 해요. 가보는 "저는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낄 때 몸으로 무엇을 하는지를 묘사하는 쪽을 택해요" 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감정 이름 대신 구체적인 동작이 들어가요. 두려움은 굳은 턱과 끊기는 호흡, 반걸음 물러서는 발, 프레임 밖을 더듬는 눈이에요. 슬픔은 눈물을 참으려 빠르게 깜박이는 눈과 내려간 시선, 불규칙한 호흡, 소매로 코를 닦는 동작이에요. 긴장은 조여진 손가락과 억제된 움직임, 늦게 오는 반응, 자세의 짧은 변화예요.

연속성은 프레임 단위로 지켜요. 앞 클립의 마지막 프레임을 잡아 인물의 위치와 시선, 배경, 구도를 살핀 뒤 다음 컷을 생성해요. 대화 장면에서는 말하는 인물로 돌아가기 전에 듣는 인물의 반응으로 한 번 끊어요. 자연스러운 영화적 편집이 되는 동시에 따로 생성된 컷 사이의 작은 차이를 가려 주는 이중 장치예요. 힉스필드에 따르면 생성된 인물이 연기자로 바뀌는 지점은 미세 동작과 공간 연속성, 그럴듯한 물리, 의도된 편집이 겹치는 자리예요.

사례 연구가 마지막에 정리한 여섯 가지는 전부 도구가

오늘 지면

- 크리에이티브
힉스필드, 1시간 AI 영화 제작 사례 공개
- AI
오픈AI, 인비디오 GPT-6 Astra 사례 공개
- AI
오픈AI, GPT-6 프롬프트 캐싱 개선 발표
- AI
오픈AI, ChatGPT Voice에 플러그인 연결
- AI
오픈AI, 우크라이나 정부에 데이브레이크 제공
- AI
오픈AI, 패러렐 Astra 도입 사례 공개



오픈AI, 제3자 안전 평가 원칙 발표



앤스로팍·오픈에버넌스, 의료 AI 협력 발표

이 지면은 2026년 9월 24일 목요일 아침 구독자 메일함으로 나간 레터를 신문 판형으로 다시 조판한 것입니다. 기사 전문은 metallab.ai 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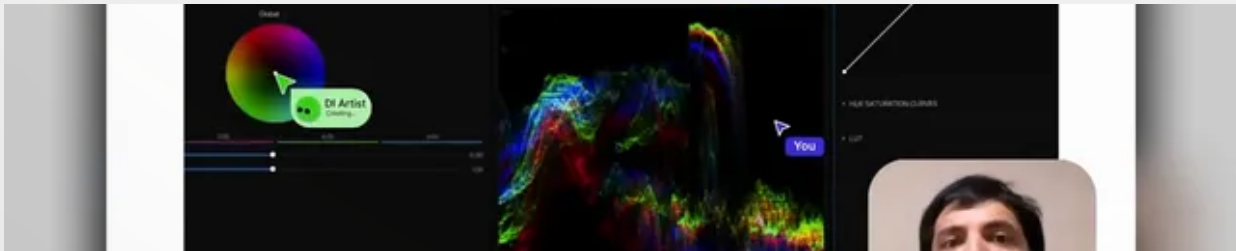
오픈AI, ChatGPT Voice에 플러그인 연결

오픈AI가 9월 23일 ChatGPT Voice를 크게 넓혔어요. 음성 대화 중에 이메일과 캘린더, 슬랙 같은 플러그인을 쓸 수 있게 됐고, 음성 뒤에서 일하는 모델로 GPT-6 Astra와 Sol, Luna를 붙였어요. 문서와 발표 자료, 스프레드시트를 만드는 업무 공간 ChatGPT Work에서도 웹과 모바일 모두 음성으로 일을 시킬 수 있어요. 오픈AI는 X에 올린 발표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다"고 적었어요. 바뀐 점은 음성

▶ 2면에 계속

AI

오픈AI, 인비디오 GPT-6 Astra 사례 공개



오픈AI가 9월 23일 영상 편집 스타트업 인비디오가 GPT-6 Astra로 편집 에이전트를 끌어올린 고객 사례를 공개했어요. 인비디오에 따르면 Astra를 붙인 뒤 컬러 그레이딩과 컬러 보정 작업의 성공률이 약 3배로 올랐고, 편집자 몇 명이 하루 만에 맞춤 효과 약 50개를 만들었어요. 오픈AI는 이 사례를 스타트업 소개 영상과 함께 냈어요.

인비디오는 사람 편집자가 주도권을 쥔 채로 편집 작업을 맡기는 에이전트형 영상 편집기예요. 영상 편집은 이야기 흐름을 잡고, 효과음을 넣고, 전환을 만들고, 색을 맞추는 결정의 연속이에요. 에이전트는 편집자의 지시를 단계로 쪼개고, 알맞은 도구를 골라 실행한 뒤 결과를 검증해야 해요. 오픈AI 사례 페이지는 인비디오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디어 분야 스타트업으로, 쓰는 제품은 API로 분류했어요.

AI

오픈AI, GPT-6 프롬프트 캐싱 개선 발표



오픈AI가 9월 22일 GPT-6 계열의 프롬프트 캐싱 개선을 발표했어요. 여러 요청이 같은 앞부분을 공유할 때 이미 계산해 둔 상태를 다시 쓰는 기능인데, 이번 개선으로 기본 캐시 적중률이 올라갔고 캐시 할인이 붙는 재사용 시간 창은 30분으로 정해졌어요. 캐시 성능을 들여다보는 대시보드와 캐시가 왜 실패했는지 알려 주는 진단 도구도 함께 나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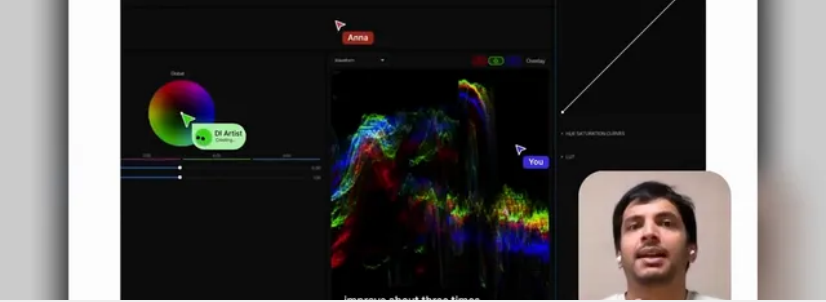
배경은 몇 시간씩 도는 에이전트예요. 오픈AI에 따르면 GPT-6는 코드베이스 리팩터링이나 조사 문서·발표 자료 제

작처럼 긴 작업을 몇 시간 동안 이어 가는 에이전트를 가능하게 하고, 그 에이전트를 돌리는 앱은 앞선 턴의 지시문과 도구 정의, 맥락을 그대로 싣고 API 요청을 줄줄이 보내요. 공유되는 앞부분이 캐시에 걸리면 응답이 빨라지고 캐시된 입력 토큰에는 최대 90% 할인이 붙어요. 메탈은 오픈AI가 같은 날 GPT-6 Sol과 Luna를 공개하며 캐시 할인과 새 캐싱 도구를 예고했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이번 발표는 그 장치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개발자 문서와 함께 풀어 놓은 후속이에요.

◀ 1면에서 계속

AI

오픈AI, 인비디오 GPT-6 Astra 사례 공개



- 오픈AI가 9월 23일 인비디오의 GPT-6 Astra 고객 사례를 영상과 함께 공개했어요.
- 컬러 그레이딩·보정 작업의 성공률이 약 3배 올랐고, 편집자 몇 명이 하루에 맞춤 효과 약 50개를 만들었어요.
- 산켓 샤 CEO는 Astra가 프레임 단위 정확도로 편집을 계획하고 더 적은 추론 단계로 일을 끝낸다고 밝혔어요.

산켓 샤 인비디오 CEO가 가장 먼저 꼽은 건 계획 능력이에요. 그는 "Astra가 특정 편집을 프레임 단위 정확도로 계획하는 방식은 꽤 놀랍다" 고 말했어요. 샤에 따르면 Astra는 이전에 시험한 모델보다 적은 추론 단계로 편집 순서를 짰고, 그만큼 출력 토 큰도 덜 썼어요. 작업이 길고 복잡해져도 여러 지시를 이어 수행하면서 편집자의 원래 목표를 놓치지 않았다고 인비디오는 밝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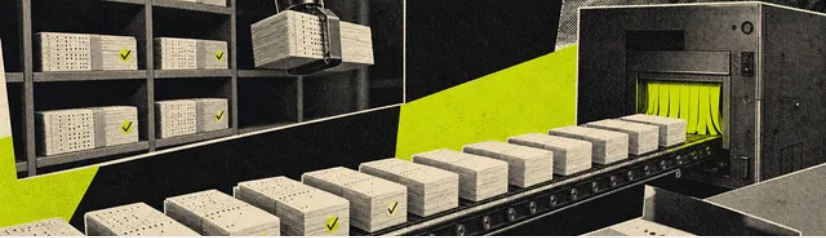
숫자가 가장 크게 움직인 곳은 색이에요. 색 작업은 보정, 그레이딩, 재생성, LUT, 특정 대상만 떼어 내는 분리 작업처럼 겹치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해서 에이전 트가 자주 틀리던 영역이에요. 배경색을 바꾸면서 인물의 피부 톤은 지키려면, 먼저 인 물을 분리해 프레임마다 추적한 뒤 나머지에 색을 입혀야 해요. 샤는 "전에는 컬러 그 레이딩과 컬러 보정 작업의 실패율이 매우 높았는데, Astra로는 성공률이 약 세 배 좋 아졌다" 고 밝혔어요.

두 번째 성과는 맞춤 효과예요. 편집자가 말로 설명하거나 참고 이미지를 주면 에이 전트가 그 영상에 맞는 효과를 코드로 짜서 타임라인에 올리고, 편집자가 다시 손볼 수 있는 조절 장치까지 붙여요. 인비디오 편집자 몇 명이 이 방식으로 하루에 효과 약 50 개를 만들었어요. 결과물이 통째로 구워진 영상이 아니라 끝까지 고칠 수 있는 타임라 인이라는 점을 인비디오는 거듭 강조했어요.

◀ 1면에서 계속

AI

오픈AI, GPT-6 프롬프트 캐싱 개선 발표



- 오픈AI가 9월 22일 GPT-6 계열의 프롬프트 캐싱 개선과 캐싱 대시보드·진단 도 구를 발표했어요.
- GPT-5.6 이후 모델은 캐시 읽기에 입력 단가의 0.1배, 쓰기에 1.25배가 매겨지 고 캐시 수명은 최소 30분이에요.
- 진단 도구는 모델·도구·추론 강도·입력 변경 등 아홉 가지 사유로 캐시 미스를 설 명하고 추가 비용이 없어요.

캐시가 저장하는 것은 글자가 아니에요. 개발자 문서에 따르면 모델은 입력 토큰을 처 리하면서 키-값 상태라고 부르는 중간 계산값을 만들고, 프롬프트 캐싱은 바뀌지 않은 앞부분의 그 상태를 보관했다가 다음 요청에서 다시 써요. 오픈AI가 넣는 숨은 시스템 지시, 도구 정의와 스키마, 개발자 메시지, 대화 기록이 이 순서로 쌓이고, 앞쪽 어디 한 군데라도 바뀌면 그 뒤는 모두 새로 계산해야 해요.

규칙은 GPT-5.6부터 달라졌어요. 캐시할 수 있는 최소 길이는 눈에 보이는 입력 1,024토큰이고, 개발자가 캐시 브레이크포인트를 직접 찍는 명시적 방식이 새로 열렸 어요. 조회할 때는 처음 2개와 마지막 50개의 명시적 브레이크포인트를 긴 것부터 거 꾸로 훑고, 암묵적 방식에서는 여기에 최신 사용자 메시지 끝과 그 앞 최대 20개 메시 지 끝이 더해져요. GPT-5.5와 GPT-5.5 Pro는 2,048토큰 간격으로 경계를 찍었고 보고되는 캐시 토큰도 128의 배수로 내림했지만, 새 방식은 정확한 경계를 그대로 보 고해요.

과금 구조도 바뀌었어요. GPT-5.6 이후 모델에서 캐시를 읽을 때는 캐시하지 않은 입력 단가의 0.1배, 캐시에 쓸 때는 1.25배가 매겨지고, 캐시 수명은 마지막으로 쓰거 나 재사용한 뒤 최소 30분이에요. 한 번 써 둔 앞부분을 30분 안에 다시 읽지 못하면 캐시하지 않았을 때보다 25%를 더 내는 셈이라, 적중률이 곧 비용이 돼요.

◀ 1면에서 계속

AI

오픈AI, ChatGPT Voice에 플러그인 연결



- 오픈AI가 9월 23일 ChatGPT Voice에서 이메일·캘린더·슬랙 같은 플러그인을 쓸 수 있게 했어요.
- 음성은 GPT-6 Astra-Sol-Luna로 움직이고, 웹과 모바일의 ChatGPT Work에 서 문서·발표 자료·스프레드시트를 음성으로 만들어요.
- 플러그인 작업 승인은 화면에서만 받고, 아티 엘레티 책임자는 받아쓰기·음성 모 드 사용자가 1억 5천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어요.

누가 무엇을 쓰는지의 요금제가 가려요. 보도에 따르면 Plus와 Pro 사용자는 휴대폰 의 Work 탭에서 문서를 만들고 이메일 초안을 쓰고 슬랙 메시지를 요약할 수 있고, 사 이트 제작과 발표 자료 작성, 클라우드 브라우저도 쓸 수 있어요. Free와 Go 사용자는 일반 채팅의 음성에서 자기 요금제가 지원하는 플러그인만 써요. 음성으로 Work를 쓰 려면 음성과 Work 접근 권한이 둘 다 있어야 하고, 기존 앱 연결과 권한, 사용 한도는 그대로 적용돼요.

오픈AI 도움말에 따르면 음성 대화 한도는 24시간 단위로 재요. Go는 GPT-Live-1 mini로 3시간, Plus는 GPT-Live-1로 3시간, Pro는 요금제에 따라 15시간이나 무 제한이에요. 음성으로 시킨 Work 작업은 글로 시킨 작업처럼 Work 사용량에도 잡혀 요. 목소리는 Arbor와 Cove, Juniper 등 9가지 중에서 고르고, 애플 카플레이에서도 음성 대화를 시작할 수 있어요.

안전장치는 화면에 있어요. 도움말에 따르면 플러그인 작업에 사용자 승인이 필요 하면 음성이 화면으로 확인을 요청하고, 사용자는 화면의 버튼으로 승인하거나 거절해 야 해요. 말로 하는 승인은 받지 않아요. 음성 대화의 오디오 클립은 대화 기록과 함께 30일 동안 보관되고, 사용자가 따로 공유하지 않으면 오디오는 모델 학습에 쓰지 않는 다고 회사는 밝혔어요. Live 모드는 아직 영상과 화면 공유를 지원하지 않아요.

AI

오픈AI, 우크라이나 정부에 데이브레이크 제공

오픈AI가 우크라이나 디지털전환부와 손잡고 사이버 방어 프로그램 데이브레이크 를 열어요. 병원·에너지·통신 같은 민간 기반시설 방어가 대상이에요.



- 오픈AI가 9월 23일 유엔총회 부대 행사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에 데이브레이크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어요.
- 우크라이나 CERT-UA는 2025년 6,000건 가까운 사이버 사고를 처리했고, 도 구는 취약점 탐지와 패치 시험에 쓰여요.
- 제공 기간·금액·모델 범위는 발표문에 없고, 이중 용도 감독 방식도 공개되지 않았 어요.

오픈AI가 9월 23일 우크라이나 정부에 사이버 방어 프로그램 데이브레이크 (Daybreak)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어요. 우크라이나 디지털전환부와 손잡고, 우크라 이나 방어 인력이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찾고 수정 패치를 더 빨리 만들어 시험할 수 있 는 도구를 열어 주는 내용이에요. 오픈AI는 병원과 에너지, 통신 같은 민간 기반시설 방어에 쓰인다고 밝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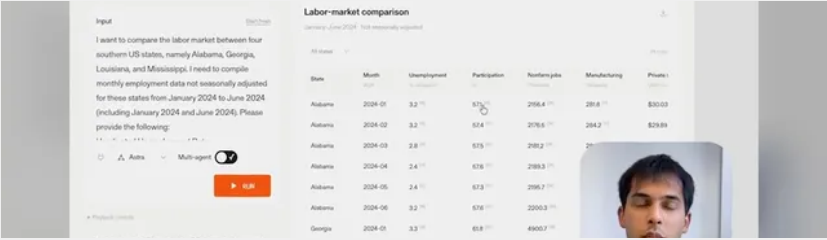
발표 자리는 뉴욕 유엔총회의 부대 행사였어요. 드미트로 쿠시네루크 샌프란시스코 주재 우크라이나 총영사와 사샤 베이커 오픈AI 국가안보정책 총괄이 함께 발표했어요. 오픈AI 발표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가 사이버 침해 대응팀 CERT-UA는 2025년 한 해에만 6,000건 가까운 사이버 사고를 처리했고, 여기에는 병원 시스템과 에너지, 통신 부문을 노린 공격이 들어 있어요.

베이커 총괄은 "우크라이나는 이미 최전선에 있고, 그 방어자들에게는 지금 지원이 필요하다" 고 말했어요. 조지 오즈본 오픈AI 포 컨트리즈 총괄은 "민간 기반시설을 지 킨다는 건 물리적 공격과 디지털 공격 모두로부터 지킨다는 뜻" 이라며, 사람들이 계속 살고 일하고 필수 서비스를 쓸 수 있게 하는 일이라고 밝혔어요.

AI

오픈AI, 패러렐 Astra 도입 사례 공개

웹 리서치 인프라 스타트업 패러렐이 GPT-6 Astra로 긴 리서치 작업의 시간과 비 용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밝혔어요. 검색을 덜 하고 더 정확히 하는 방식이 속도의 이 유로 꼽혔어요.



- 오픈AI가 9월 22일 패러렐의 GPT-6 Astra 도입 사례를 공개했어요.
- 노동시장 통계 리서치 시험에서 Astra는 이전 모델의 절반 시간에 끝냈고 코드 비용은 약 50% 줄었어요.
- 패러렐의 검색 역량 리더보드에서도 Astra는 검색 지능 70.3으로 24개 모델 중 1위였어요.

오픈AI가 9월 22일 AI 에이전트용 웹 리서치 인프라를 만드는 스타트업 패러렐의 GPT-6 Astra 도입 사례를 공개했어요. 패러렐은 긴 리서치 작업에 Astra를 붙인 뒤 작업 시간이 이전 모델의 절반으로 줄었고, 코드 비용은 약 50% 내려갔다고 밝혔 어요. 결과물의 품질은 그대로였다네 게 회사의 설명이에요.

패러렐은 웹을 뒤져 지식 노동을 하는 에이전트에게 도구를 파는 회사예요. 오픈AI 의 사례 페이지에 따르면 이 회사의 도구는 음성 에이전트에 웹 근거를 대 주는 일부터 금융기관과 법률 고객을 위한 리서치까지 쓰이고, 프린터에 모델과 웹 검색을 묶는 방 식으로 돌아가요. 사례 페이지는 회사 규모를 스타트업, 지역을 북미, 쓰는 제품을 API 로 적었어요.

문제는 가장 오래 걸리는 리서치였어요. 그동안 이런 작업에서 좋은 답을 얻으려면 더 큰 모델에 긴 추론을 걸어야 했고, 그만큼 시간과 자원이 들었어요. 패러렐의 대빈 굿타 기술 스태프는 "Astra로 같은 수준의 리서치를 훨씬, 훨씬 빠르게, 더 적은 리서 치 호출과 더 적은 토큰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 줬다" 고 말했어요.

AI

오픈AI, 제3자 안전 평가 원칙 발표

외부 평가를 깊게 받을 영역 네 곳과 평가가 지킬 원칙 일곱 가지를 한 문서에 담았 어요. 평가 주장은 미리 등록하고, 평가자는 회사가 요청한 삭제 사실까지 보고서에 적을 수 있어요.



- 오픈AI가 9월 22일 제3자 안전 평가의 우선 영역 네 곳과 원칙 일곱 가지를 발표 했어요.
- 안전 사례, 핵심 안전장치, 대비 프레임워크 역량 평가, 중대한 미정렬 사건 조사 가 우선 영역이에요.
- 평가 주장은 사전 등록하고, 이해충돌을 공개하며, 평가자는 편집 독립성과 삭제 사실 표기 권한을 가져요.

오픈AI가 9월 22일 외부 기관이 자사 모델의 안전을 검증하는 방식에 대한 원칙을 발 표했어요. 제3자 평가를 깊게 받을 영역 네 곳과 평가가 지켜야 할 원칙 일곱 가지를 한 문서에 담았고, 평가자에게 학습과 평가, 배포 전 단계에 걸쳐 깊은 수준의 접근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회사는 발표문에서 그 접근이 "평가자가 우리의 가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가 놓쳤을 수 있는 위험을 찾아내고, 우리 안전장치의 효과에 대해 스스 로 결론에 이르게 해야 한다" 고 적었어요.

문서의 출발점은 책임의 배분이에요. 오픈AI는 프린터에 AI 연구소가 모델을 안전 하게 학습하고 평가하고 배포할 막대한 책임을 지고, 제3자 평가는 그 책임의 균형을 잡으면서 연구소가 분명하고 독립적으로 뒷받침된 안전 주장에 책임을 지게 하는 핵심 장치라고 적었어요. 대상은 민간과 비영리 부문의 독립 평가 기관이 하는 기술적 안전 평가로 한정했고, 정부와 함께하는 시험·평가는 역할과 책임이 달라 다른 접근이 필요 할 수 있다며 따로 떼어 놔요.

용어부터 정의했어요. 안전 주장은 모델이나 시스템의 능력, 행동, 안전장치에 관해 증거로 따져 볼 수 있는 구체적 단언이고, 어떤 위험과 조건을 다루는지와 전제, 한도 를 함께 밝혀야 한다고 문서는 적었어요. 안전 사례는 학습이나 평가, 배포 같은 특정 활동에서 위험이 충분히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설명하는 구조화된 논증이에요. 개별 안전 주장을 증거에 잇고, 결론을 흔들 수 있는 가정과 불확실성, 남은 위험을 드 러내야 해요.

비즈니스

앤스로픽·오픈에비던스, 의료 AI 협력 발표

오픈에비던스의 특화판을 저소득·중간소득 국가 의료진에게 무료로 제공해요. 앤스로픽이 기술을 받치고 오픈에비던스가 지역마다 도구를 맞추며, 약 100개국이 대상이에요.



- 1 앤스로픽과 오픈에비던스가 9월 22일 저소득·중간소득 국가 의사에게 AI 임상 의사결정 지원 도구를 무료로 제공하는 협력을 밝혔어요.
- 2 보도에 따르면 우간다·앙골라·수단·아이티·몽골을 포함한 약 100개국이 대상이고 재무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 3 미국 임상외는 8월 한 달에만 오픈에비던스를 4,200만 번 조회했어요.

앤스로픽과 의료 지식 플랫폼 오픈에비던스가 AI 기반 임상 의사결정 지원 도구를 그 동안 이 기술에 닿지 못한 지역의 의사들에게 가져가는 협력을 발표했어요. 두 회사는 9월 22일 현지 시간 이 사실을 밝혔고, 오픈에비던스의 특화판을 저소득·중간소득 국가 수십 곳의 의료진에게 무료로 제공해요. 보도에 따르면 오픈에비던스가 제공한 목록 기준으로 우간다, 앙골라, 수단, 아이티, 몽골을 포함한 약 100개국에 풀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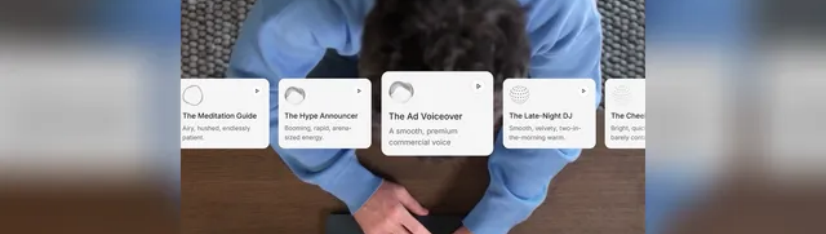
오픈에비던스는 동료 심사를 거친 의학 연구와 진료 지침을 근거로 의사의 질문에 답하는 서비스예요. 미국과 유럽의 임상외에게는 이미 무료로 열려 있어요. 이번 특화 판은 의학 문헌과 전문의 자문, 보수 교육에 닿기 어려워 환자 진료가 흔들리는 곳을 겨냥했어요.

역할은 나뉘어 있어요. 두 회사에 따르면 앤스로픽의 기술이 뒤에서 시스템을 받치고, 오픈에비던스가 지역마다 다른 의료 인프라를 고려해 도구를 맞춰요. 협력의 재무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어요.

AI

구글, Gemini 3.8 TTS 모델 2종 출시

구글이 목소리를 글로 설계하는 Gemini 3.8 Flash TTS와 대량 처리용 Flash-Lite TTS를 출시했어요. 30초 샘플 복제에는 구두 동의 확인과 SynthID 워터마크를 붙였어요.



- 1 구글이 9월 23일 Gemini 3.8 Flash TTS와 Flash-Lite TTS 2종을 출시했어요.
- 2 기본 목소리 30개에서 2,000개 이상의 라이브러리로 넓히고, 글로 새 목소리를 짓거나 30초 샘플로 복제할 수 있어요.
- 3 홈 AI 목소리 설계 벤치마크에서 71.4점으로 1위였고, 입력은 텍스트 최대 8K 토큰이에요.

구글이 9월 23일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꾸는 Gemini 3.8 TTS 모델 2종을 출시했어요. 창작용 Gemini 3.8 Flash TTS는 자연어 설명만으로 새 목소리를 설계하고, 대량 처리용 Gemini 3.8 Flash-Lite TTS는 더빙과 음성 에이전트처럼 물량이 많은 작업을 맡아요. 두 모델 모두 같은 날부터 Gemini API와 Google AI Studio에서 풀리기 시작했어요.

구글의 설명은 한 문장으로 모여요. 발표문을 쓴 리랜드 레치스 그룹 프로덕트 매니저와 앨런 코웬 연구과학 디렉터는 이번 모델이 "음성 생성을 정적인 프리셋에서 역동

적인 창작 스튜디오로 바꾼다" 고 밝혔어요. 기본 목소리 30개를 고르던 방식에서, 제작 현장에 바로 쓰는 목소리 2,000개 이상의 라이브러리와 직접 만드는 목소리로 넓혔다는 뜻이에요. 라이브러리에는 멕시코 스페인어, 퀘벡 프랑스어, 스코틀랜드 영어 같은 지역 변종도 들어 있어요.

목소리를 만드는 길은 세 갈래예요. 첫째는 역할과 억양, 음색을 글로 적어 목소리를 처음부터 짓는 방식이고, 100개가 넘는 언어와 방언에서 돼요. 둘째는 30초짜리 음성 샘플로 본인 목소리나 사용 권리가 있는 목소리를 재현하는 방식이에요. 셋째인 음성 리믹스는 라이브러리 목소리의 음색과 음높이, 속도, 억양을 프롬프트로 다듬는 기능인데 곧 나온다고만 적혀 있어요. 만든 목소리는 저장해 두고 여러 프로젝트에서 같은 소리로 이어 쓸 수 있어요.

비즈니스

갤럭시코퍼레이션, 뉴욕 휴머노이드 로봇 공연

지드래곤 소속사가 유엔 세계 평화의 날에 맞춰 뉴욕 록펠러센터와 타임스스퀘어에서 로봇 공연을 열었어요. 상장은 코스닥 대신 미국으로 방향을 틀었고, 내년 1월 로봇 아이돌 데뷔를 준비하고 있어요.



- 1 갤럭시코퍼레이션이 9월 21일 뉴욕 록펠러센터 옥상 정원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K팝 공연을 열었어요.
- 2 이를 전 타임스스퀘어에서는 로봇 17대를 세워 「하나의 세계 하나의 평화」 플래시몹을 열었어요.
- 3 서울 고덕의 갤럭시 로봇파크는 7월부터 상설 공연 중이고 누적 관람객은 2만 명을 넘었어요.

유엔 세계 평화의 날인 9월 21일 현지 시간, 뉴욕 록펠러센터 옥상 정원 로프트앤드가 든 무대에 우주복 차림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올랐어요. 로봇들은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와 사이의 「강남스타일」에 맞춰 칼군무를 쳤고, 현지 인플루언서들이 그 앞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행사를 연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이를 전인 19일에도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로봇 17대를 세워 「하나의 세계 하나의 평화」 메시지를 전하는 플래시몹을 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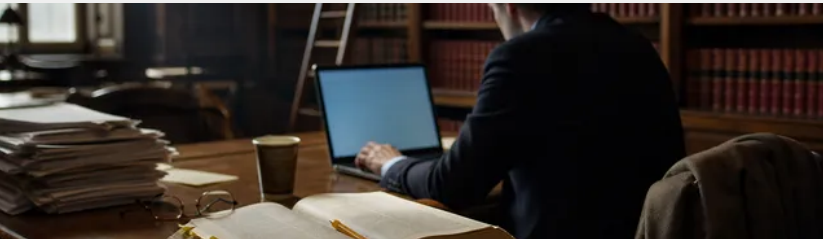
이 회사는 가수 지드래곤과 태민, 배우 송강호, 메이저리그 선수 이정후가 소속된 연예기획사예요. 2019년에 공동 창업했고 자본금은 100만 원이었어요. 최근 1조 원이 넘는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지금까지 약 2,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창업 6년째인 지난해 매출 2,989억 원과 영업이익 125억 원을 냈어요. 기획사가 로봇 회사로 넘어가는 중간 지점에 서 있는 셈이에요.

무대는 이미 상설로 돌아가고 있어요. 서울 고덕에 있는 1만6,500제곱미터 규모의 갤럭시 로봇파크에서는 7월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이 소속 가수의 옷을 입고 공연하고 있고, 누적 관람객은 2만 명을 넘었어요. 최용호 갤럭시코퍼레이션 대표는 처음에는 수요가 적을 것으로 보고 공연을 무료로 구상했다고 밝혔어요. 그는 "이 사업이 잘될 것 같다는 미국 증권거래소 관계자들 얘기를 듣고 실제 티켓을 팔아보니 관람객이 하루 1000명씩 들어올 정도" 라고 말했어요. 이어 "어린이들은 한번 재미있게 본 콘텐츠는 10번, 100번을 반복해서 본다" 라고 덧붙였어요.

비즈니스

C.H.벙크, 법률 AI 녹스투아 과반 지분 확보

녹스투아가 1억 유로가 넘는 시리즈 C를 마치며 독일 법률 출판사 C.H.벙크가 최대 주주가 됐어요. 기존 투자자 다섯 곳이 빠지고 오스트리아 출판사 만츠가 새로 들어왔어요.



- 1 법률 AI 회사 녹스투아가 9월 23일 1억 유로가 넘는 시리즈 C를 마쳤고 C.H.벙크가 과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가 됐어요.
- 2 C.H.벙크의 260년 넘는 역사에서 가장 큰 투자이고, 만츠가 새 투자자로 합류하고 기존 투자자 다섯 곳이 빠졌어요.
- 3 녹스투아는 이용자 3만 명 이상·직원 약 100명이며 출판사 독점 데이터로 나라별 법률 AI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요.

독일의 대표 법률 출판사 C.H.벙크가 베를린에서 출발한 법률 AI 회사 녹스투아의 과반 지분을 확보했어요. 녹스투아는 9월 23일 총 1억 유로가 넘는 시리즈 C 투자를 마쳤다고 발표했고, 이 라운드로 C.H.벙크가 새 최대주주가 됐어요. 오스트리아 법률 출판사 만츠는 소수 지분 투자자로 새로 들어왔어요. 녹스투아에 따르면 이번 투자는 1763년에 세워진 C.H.벙크가 260년 넘는 역사에서 한 가장 큰 투자예요.

주주 구성도 크게 바뀌었어요. 기존 투자자인 글로벌브레인, KDDI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로펌 CMS와 덴텐스, 아이오타 재단 창업자 도미니크 시너가 이번에 빠져요. 회사는 이들이 콘텐츠와 전략 중심으로 깊어진 방향에 맞추기 위해 자리를 내줬다고 설명했어요. CMS와 덴텐스는 핵심 고객으로 협력을 이어 가고, CMS는 2024년 녹스투아를 함께 기획한 곳이기도 해요.

두 회사의 관계는 1년 반 전에 시작됐어요. 2025년 4월 23일 녹스투아의 전신인 Xayn AG는 C.H.벙크를 주도 투자자로 8,070만 유로의 시리즈 B를 마쳤고, 당시 유럽 법률 AI 분야에서 가장 큰 투자 라운드였어요. 같은 발표에서 회사 이름을 녹스투아 SE로 바꾼다고 알렸고, 그해 두 회사는 독일에서 Beck-Noxtua 법률 AI 워크스페이스를 함께 내놔요.

비즈니스

갤럽, 37개국 AI 인식 조사 결과 발표

37개국 중 34개국에서 AI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부정적 감정보다 많았어요. 서구 고소득 7개국은 AI를 가장 많이 쓰면서도 걱정 순위 상위를 차지했어요.



- 1 갤럽이 9월 23일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한 37개국 AI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 2 34개국에서 긍정 감정이 부정 감정보다 많았고, 긍정 감정 중간값은 72%, 부정 감정은 41%였어요.
- 3 서구 고소득 7개국이 걱정 순위 상위를 차지했지만, 같은 나라 안에서도 매일 쓰는 사람이 덜 걱정했어요.

갤럽이 9월 23일 37개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AI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37개국 가운데 34개국에서 AI에 대한 긍정적 감정이 부정적 감정보다 많았고, 예외는 미국과 이집트, 팔레스타인 세 곳이었어요. 반대로 미국과 네덜란드, 캐나다 같은 서구 고소득 국가는 AI를 가장 많이 쓰면서도 가장 걱정하는 나라로 묶였어요.

이번 결과는 갤럽이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진행하는 연구의 첫 묶음이에요. 갤럽에 따르면 올해 현장 조사를 먼저 끝낸 37개국의 결과이고, 연구는 최종적으로 140개국을 다룰 예정이에요. 조사는 감정 반응과 인지도, 사용 빈도, 기대하는 영향, 신뢰의 다섯 차원으로 AI와 사람의 관계를 재요. 보도에 따르면 나라마다 최소 1,000명을 면접했고, 오차범위는 나라에 따라 2.2~4.9%포인트예요.

AI를 아는 것과 써 본 것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어요. 37개국의 인지도 중간값은 81%였지만 한 번이라도 써 본 사람의 중간값은 43%에 그쳤고, 한 번도 써 본 적 없는 사람의 중간값은 57%였어요. 싱가포르의 성인의 96%가 AI를 알고 79%가 써 봤으며 46%가 매일 써요. 말라위는 인지도 12%, 사용 경험 3%, 매일 사용 1%였어요.